

#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 마련·시행

고용노동부(장관 김문수)는 「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」을 마련하여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 지난 3월 1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 겸 경제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(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)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지침을 신설한 것으로 동 지침은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만 적용된다.

해당 지침은 ①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 신설, ②필수 요건(건강보호조치 등) 외 재심사 기준은 간소화, ③건강권 보호를 위해 특례는 인가시간을 첫 3개월 주 최대 12시간, 그 다음 3개월 주 최대 8시간으로 차등 부여, ④특례 활용 기업에는 건강검진 의무화\*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.

\* 건강보호조치는 「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」로 규정, 조속히 개정 추진

고용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, 산업통상자원부, 반도체산업협회 등을 통해 반도체 기업들이 동 지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, 근로자 건강은 확실히 보호하고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. 또한 근로자들이 우려하는 건강권 보호조치나 보상과 관련해서는 「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」\*를 운영하여 근로자들이 스스로 위법 의심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, 위법 사항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.

\* labor.moel.go.kr(노동포털)→ 민원신청·조회→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→ 특별연장근로 신고

고용노동부	노동개혁정책과 임금근로시간정책과	책임자	과 장	한진선 (044-202-7991)
		담당자	서기관	김지은 (044-202-7982)
			사무관	이혜민 (044-202-7541)